

학업성취와 자율적 행동역량 : 독서시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A Study into Academic Achievement and the Key Competency of Acting Autonomously :
With a Special Focus on the Mediating Effects of Book-reading Hours*

이정민(Jungmin Lee)¹⁾

이강이(Kangyi Lee)²⁾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hours spent on book-read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and the Key Competency of Acting Autonomously. This study utilized data from the 'Korean Assessment of the Key Competencies of Youth in 2009', which was condu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he participants were 2,781 elementary school students, 2,770 middle school students and 3,599 high school students who were selected from 12 areas of Korea. The data was analyzed by means of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also through linear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d that 1) academic achievement and the hours spent in book-reading was positively correlated to the competency of acting autonomously, 2) the effect of academic achievement on the competency of acting autonomously was partially mediated by the hours spent in book-reading, 3) and the mediating effect was the most influential when it came to elementary students, followed next by middle school and then finally high school students.

Key Words : 학업성취(Academic Achievement), 자율적 행동역량(The Key Competency of Acting Autonomously), 독서시간(Hours spent in book-reading).

* 이 논문은 2011년도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요약문의 전문임.

이 논문은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청소년정책연구원, 2009)의 자료를 사용하였음.

¹⁾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²⁾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기금부교수 겸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Corresponding Author : Kangyi Lee,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 Kwanak-ro, Kwanak-gu, Seoul 151-742, Korea
E-mail : kangyil@snu.ac.kr

I. 서 론

‘자율적 행동(Acting Autonomously)’은 OECD에서 199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DeSeCo프로젝트(Defining and Selecting of Key Competencies)에서 현대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의 하나로 제시되었으며 “개인이 자신의 삶과 업무 조건을 조절하여 자신의 삶을 의미있고 책임있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능력”이라고 정의된다(OECD, 2005). 기존의 학교 교육이 정태적 지식의 습득 및 재생 능력에 초점을 두었다면 역량은 구체적인 맥락의 요구에 반응하면서 생활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학교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지식기반 사회에서 중요하다(권해수·김민성·강영신, 2011).

학업성취와 자율적 행동역량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먼저 국가적 차원에서 OECD의 DeSeCo가 제시하는 자율적 행동 역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학교들도 역량 중심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소경희, 2007). 이에 현재의 교육 과정이 학생들의 자율적 행동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현재 교육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이룬 학업성취가 단지 학교 내에서는 학업성취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에 걸친 성공적인 문제 해결 및 자기주도적인 삶과도 관련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필수적이다.

학업성취와 자율적 행동역량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자율적 행동역량과 내용 면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보다 신념의 측면에 초점을 맞춘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를 통해 자율

적 행동역량과 학업성취간의 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어떤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으로, 그 기술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그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는지에 대한 개인의 판단이다(Bandura, 1977). 자율적 행동역량은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역량(권해수·김기현, 2010)이라는 점에서 신념보다는 실제에 가깝다. 그러나 행동은 행위자의 사건 및 사물에 대한 인지양식에 의존함(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4)으로 미루어볼 때 신념과 실제 행동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와 관련이 된다면, 자율적 행동역량 또한 학업성취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Zimmerman, Bandura, & Martinez-Pons, 1992; Chemers, Hu, & Garcia, 2001). 이는 자기효능감이 학습 동기의 원천으로 작용하며 성공적인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Pajares, 1996). 그러나 성공경험이 자기효능감의 원천(Bandura, 1997)이라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학업성취를 통해 성공경험을 가진 학생들은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선순환의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자기효능감과 같은 신념을 가지는 것이 실제로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생활하는 역량을 보이는 것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근거에서 이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종속변인으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는 학업 성취를 독립변인으로 두어 자율적 행동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러나 학업성취 수준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자율적 행동 역량이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학생의 의지와 상관없는 과도한 입시 교육으로 인해 학업이 자율적 행동을 길러주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권해수·김기현, 2010)으로 미루어볼 때 학생이 자발적 동기에 의해 공부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자율적 행동 역량이 다를 것이다. 이에 자기주도적 학습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자기주도적 학습이란 타인의 조력 여부와 상관없이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학습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이다(Knowles, 1975). 따라서 타율적인 동기로 공부했을 때는 학업성취가 높더라도 그러한 자기주도적 학습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율적 행동 역량이 길러지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학업성취와 자율적 행동 역량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들 수 있다. 권해수와 김기현(2010)은 스스로 책을 읽는 시간이나 운동을 하는 시간 등이 청소년의 일상생활에서 자기관리가 요구되는 항목이라고 하며 청소년들의 자율적 행동 관련 변수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독서 시간을 매개요인으로 하여 독서가 학업성취와 자율적 행동 역량의 관계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초·중·고등학교별로 학업성취에 대한 압박 정도가 다르며 독서에 대한 인식 및 현황 수준이 다를 것이므로 대상을 초·중·고등학생으로 나누어 독서가 매개역할을 수행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초·중·고등학생의 학업성취, 자율적 행동역량 및 독서시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초·중·고등학생의 학업성취와 자율적 행동 역량의 관계에서 독

서시간의 매개효과가 유의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2009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Korean Assessment of the Key Competencies of Youth in 2009)’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표집은 전국 12개 시도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6학년 학생 및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각 시도의 학생비율 분포에 따라 규모비례확률표집법(PPS)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최종표본으로 선정된 초등학생 2,781명, 중학생 2,770명, 그리고 고등학생 3,599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응답이 누락된 경우가 있어 자료처리 과정에서 다소 인원의 변동이 있었다.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었는데 대상자들이 보고한 가정형편은 보통 수준 이상이 전체의 50%를 넘어 대부분 중상위층 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임을 알 수 있었다.

2. 조사도구

1) 자율적 행동 역량

자율적 행동역량은 개인이 자신의 생애를 관리하고 확대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자리매김하며 자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김기현·맹영임·장근영·구정화·강영배·조문흠, 2009). 자율적 행동역량은 ‘거시적인 맥락 속에서 행동하기’, ‘계획과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 ‘권리와 이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하기’의 세 영역으로 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두

번째인 ‘계획과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로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왜냐하면 각 하위영역이 상호관련 되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사항이 다르다(OECD, 2005)는 점을 고려할 때, 각 영역을 통합하기보다는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는 것이 구체적인 지침 제공에 도움이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평균 및 빈도

변인		초등학생 (N = 2,781)	중학생 (N = 2,770)	고등학생 (N = 3,599)
성별	남	1,412(50.8)	1,474(53.2)	1,913(53.2)
	여	1,369(49.2)	1,296(46.8)	1,686(46.8)
	전체	2,781(100.0)	2,770(100.0)	3,599(100.0)
경제수준	1. 매우 못산다	9(.3)	26(.9)	69(1.9)
	2.	38(1.4)	83(3.0)	250(6.9)
	3.	181(6.5)	299(10.8)	609(16.9)
	4. 보통 수준	1,317(47.4)	1,458(52.6)	1,883(52.3)
	5.	772(27.8)	662(23.9)	641(17.8)
	6.	266(9.6)	153(5.5)	88(2.4)
	7. 매우 잘산다	109(3.9)	53(1.9)	20(.6)
	전체	2,692(96.8)	2,734(98.7)	3,560(98.9)
아버지 학력	초졸 이하	29(1.0)	33(1.2)	96(2.7)
	중졸	50(1.8)	80(2.9)	198(5.5)
	고졸	850(30.6)	1,093(39.5)	1,753(48.7)
	대졸	1,315(47.3)	1,200(43.3)	1,250(34.8)
	대학원 졸	202(7.3)	178(6.4)	196(5.4)
	전체	2,446(88.0)	2,584(93.3)	3,493(97.1)
어머니 학력	초졸 이하	24(.8)	28(1.0)	88(2.5)
	중졸	55(2.0)	95(3.4)	233(6.5)
	고졸	998(35.9)	1,336(48.2)	2,157(59.9)
	대졸	1,212(43.6)	1,030(37.1)	914(25.4)
	대학원 졸	126(4.5)	86(3.1)	83(2.3)
	전체	2,415(86.8)	2,575(93.0)	3,475(96.6)
학업성취	전체	3.44(.71)	2.97(.84)	2.67(.70)
		2,603(93.6)	2,726(98.4)	3,284(91.2)
자율적 행동역량	전체	3.55(.74)	3.45(.70)	3.52(.65)
		2,717(97.7)	2,709(97.8)	3,534(98.2)
독서시간	전혀 없다	12,9(4.6)	414(14.9)	1,055(29.3)
	30분 이내	929(33.4)	878(31.7)	1,192(33.1)
	30분-1시간	1,119(40.2)	803(29.0)	724(20.1)
	1시간-2시간	395(14.2)	427(15.4)	335(9.3)
	2시간 이상	185(6.7)	214(7.7)	270(7.5)
	전체	2,757(99.1)	2,736(98.8)	3,576(99.4)

주 : ()의 수치는 백분율 또는 표준편차임.

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 ‘계획과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 영역이 학업성취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 영역에 한정하여 자율적 행동 역량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Korean Assessment of the Key Competencies of Youth in 2009)’ 질문지의 중 초등학교의 경우 28-1)번부터 12)번 문항, 중·고등학교는 46-1)번부터 12)번 문항을 사용하여 자율적 행동 역량-계획과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를 측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총점 12~60점을 문항 수로 나눈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1점부터 5점까지이다.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초등학교의 경우 .91, 중·고등학교의 경우 .88로 나타났다. 표 1을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평균점수는 3.55($SD = .74$), 중학생은 3.45($SD = .70$), 그리고 고등학교는 3.52($SD = .65$)로 나타났다.

2) 학업성취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학업성취는 좁은 의미로서 지적 영역만을 다루는 학업 성적으로, 학생들이 학교 교과목에서 얻은 점수로 정의할 수 있다(강현석, 2008).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Korean Assessment of the Key Competencies of Youth in 2009)’ 질문지의 3번 문항 ‘반에서의 학업성적(2009년 1학기)은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나요?’를 통해 측정하였다. 응답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및 과학의 다섯 과목에 대해 각각 ‘매우 못하는 수준’(1점)부터 ‘매우 잘하는 수준’(5

점)의 범위에서 이루어졌다. 초등학교 중 영어를 배우지 않는 경우가 77건(2.8%) 있었는데 이는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5개 과목에 대한 응답을 더하여 5로 나누어 평균을 낸 값을 학업성취의 척도로 사용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1점에서 5점까지이다. 표 1을 보면 초등학교가 보고한 학업성취는 3.44($SD = .71$), 중학생의 경우 2.97($SD = .84$), 그리고 고등학교는 3.52($SD = .65$)였다.

3) 독서시간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Korean Assessment of the Key Competencies of Youth in 2009)’ 질문지의 8번 문항 ‘매일 교과서나 참고서를 제외한 책을 읽는 데 사용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를 통하여 독서시간을 측정하였다. 응답은 전혀 없다(1점), 30분 이내(2점), 30~1시간(3점), 1시간~2시간(4점), 2시간 이상(5점)으로 측정되었다. 이 자체는 비율척도가 아니지만 점수가 올라갈수록 독서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속적인 척도라고 간주하고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자료분석

자료는 SPSS win 15.0 progra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각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고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그리고 학업성취에 따른 자율적 행동역량 및 학업성취와 자율적 행동역량의 관계에서 독서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 (1986)의 단계에 근거한 단순회귀 및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학업성취, 자율적 행동역량 및 독서 간의 상관관계

초·중·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 자율적 행동역량 및 독서시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요인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표 2에 제시된 학업성취도와 자율적 행동역량의 상관을 살펴보면 초등학생($r = .40, p < .001$), 중학생($r = .37, p < .001$), 고등학생($r = .28, p < .001$)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교급이 높아질수록 상관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자율적 행동역량 또한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학업성취도와 독서시간의 상관은 초등학생($r = .27, p < .001$), 중학생($r = .15, p < .001$), 고등학생($r = .05, p < .001$)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교급이 높아질수록 상관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독서시간 또한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자율적 행동역량과 독서시간의 상관 또한 초등학생($r = .27, p < .001$), 중학생($r = .15, p < .001$), 고등학생($r = .08, p < .001$)로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다. 여기에서도 교급이 올라갈수록 상관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여 이는 자율적 행동역량이 높을수록 독서시간 또한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일반적으로 상관계수의 범위가 $\pm .20$ 에서 $.40$ 사이면 상관이 낮고 $\pm .00$ 에서 $.20$ 사이이면 상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성태제, 2007)는 견해로 미루어볼 때, 전반적으로 학업성취도, 자율적 행동역량 및 독서시간의 관계는 낮은 정도의 상관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상관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특히 낮은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학업성취도와 자율적 행동역량의 관계에서 독서의 매개역할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번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로 독립변수인 학업성취도와 종속변수인 자율적 행동역량을 사용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

<표 2> 학업성취도, 자율적 행동역량 및 독서의 관계

		학업성취도	자율적 행동역량	독서시간
학업성취도	초등학생(N = 2,524)	1	.40***	.27***
	중학생(N = 2,632)		.37***	.15***
	고등학생(N = 3,205)		.28***	.05**
자율적 행동역량	초등학생(N = 2,524)	1		.27***
	중학생(N = 2,632)			.15***
	고등학생(N = 3,205)			.08**
독서시간	초등학생(N = 2,524)	1		
	중학생(N = 2,632)			
	고등학생(N = 3,205)			

** $p < .01$. *** $p < .001$.

다. 둘째로 독립변수인 학업성취도와 매개변수인 독서시간을 사용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로 독립변수인 학업성취도를 통제된 상태에서 매개변수인 독서시간과 종속변수인 자율적 행동역량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동시에 매개변수인 독서시간을 통제된 상태에서 독립변수인 학업성취도와 종속변수인 자율적 행동역량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학업성취도와 독서시간의 공차는 .93~.99, 분산팽창계수(VIF)는 1.02~1.08 사이에 분포하였다. 공차와 VIF 모두 1에 근접할 때 다중공선성이 없다고 판단한다(성태제, 2007)는 의견에 따라 이 연구의 독립변인들은 다중공선성에 대한 염려는 적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Durbin-Watson 검정 결과가 1.82~1.93으로 나타나 변인들이 상호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었다.

2. 초·중·고등학생의 학업성취 및 자율적 행동역량의 관계에서 독서의 매개역할

표 3을 살펴보면 첫째로 초등학생의 경우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학업성취도가 종속변수인 자율적 행동 역량의 분산의 16%를 설명하였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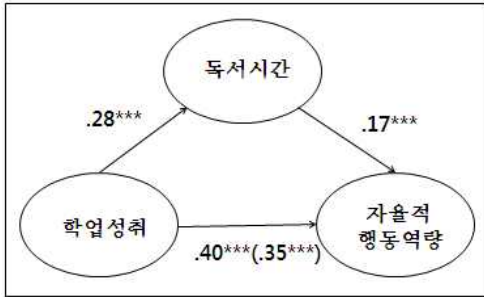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40, p < .001$). 그리고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학업성취도가 매개변수인 독서시간의 분산을 8% 설명하였으며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28, p < .001$). 그리고 3단계에서 종속변수인 자율적 행동 역량에 대한 매개변수 독서시간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 = .17, p < .001$) 자율적 행동 역량에 대한 학업성취도의 회귀계수가 1단계($\beta = .40, p < .001$)보다 줄어들었다($\beta = .35, p < .001$). 그리고 3단계에서 학업성취도와 독서시간을 모두 포함하는 모델이 자율적 행동 역량의 분산을 설명하는 정도는 18%로, 1단계의 값보다 증가하였다. β 의 변화 정도가 유의한지를 검사하는 Sobel's Test의 결과 또한 유의하여, 회귀모델에서 독서시간이 포함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학업성취도와 자율적 행동 역량 간의 상관이 유의하게 컸음을 알 수 있다($z = 7.89, p < .001$).

다음으로 중학생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학업성취도가 종속변수인 자율적 행동 역량의 분산을 14% 설명하였으며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37, p < .001$). 그리고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학업성취도가 매개변수인 독서시간의 분산을 2% 설명하였으며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15, p < .001$). 그리고 3단계에서 종속변수인 자율적 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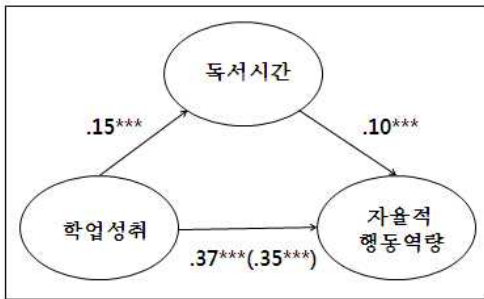
<표 3> 학업성취도와 자율적 행동역량의 관계에 대한 독서의 매개효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β	R^2	β	R^2	β	R^2
1단계 학업성취도(IV) → 자율적 행동역량(DV)	.40***	.16	.37***	.14	.28***	.08
2단계 학업성취도(IV) → 독서시간(ME)	.28***	.08	.15***	.02	.05**	.00
3단계 학업성취도(IV) → 자율적 행동역량(DV)	.35***	.18	.35***	.14	.28***	.08
독서시간(ME) → 자율적 행동역량(DV)	.17***		.10***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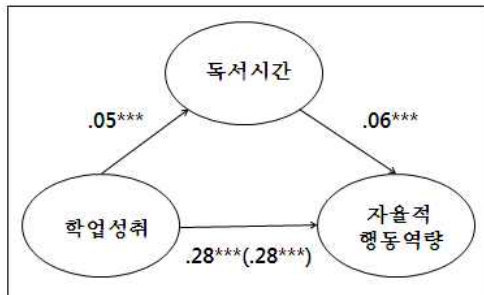
** $p < .01$. *** $p < .001$.



〈그림 1〉 독서의 매개효과-초등학생



〈그림 2〉 독서의 매개효과-중학생



〈그림 3〉 독서의 매개효과-고등학생
*** $p < .001$.

동역량에 대한 매개변수독서시간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 = .10, p < .001$) 자율적 행동역량에 대한 학업성취도의 회귀계수가 1단계($\beta = .37, p < .001$)보다 줄어들었다($\beta = .35, p < .001$). 그리고 3단계에서 학업성취도와 독서시간을 모두 포함하는 모델이 자율적 행동역량의 분산을 설명하는 정도는 14%로 1단계와

동일하였다. β 의 변화 정도가 유의한지를 검사하는 Sobel's Test의 결과 또한 유의하여, 회귀모델에서 독서시간이 포함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학업성취도와 자율적 행동역량 간의 상관이 유의하게 컸음을 알 수 있다($z = 4.43, p < .001$).

고등학생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학업성취도가 종속변수인 자율적 행동역량의 분산을 8% 설명하였으며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28, p < .001$). 그리고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학업성취도가 매개변수인 독서시간의 분산을 0% 설명하였으며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05, p < .01$). 그리고 3단계에서 종속변수인 자율적 행동역량에 대한 매개변수 독서시간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 = .06, p < .001$) 자율적 행동역량에 대한 학업성취도의 회귀계수가 1단계($\beta = .28, p < .001$)와 동일하였다($\beta = .28, p < .001$). β 의 변화 정도가 유의한지를 검사하는 Sobel's Test의 결과 또한 유의하여, 회귀모델에서 독서시간이 포함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학업성취도와 자율적 행동역량 간의 상관이 유의하게 컸음을 알 수 있다($z = 2.17, p < .01$).

이 결과에 대한 모형은 그림 1부터 그림 3에 걸쳐 제시되었다.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아동 및 청소년의 학업성취, 자율적 행동역량과 독서시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독서시간이 학업성취와 자율적 행동역량의 관계를 매개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 중, 고등학생의 학업성취가 우수할

수록 스스로 학습 및 인생 목표와 과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수행하고 평가하는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청소년들은 학업성취를 가장 자랑스러운 경험으로 생각(박영신 외, 2002)하며, 성공경험이 자기효능감의 원천이 된다(Bandura, 1997)는 것과 동일한 맥락의 것으로 보인다. 즉 학생들이 학업성취에서 성공경험을 경험하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삶을 관리하고 이끌어가는 능력, 즉 자율적 행동역량이 있는 존재로 여기게 되는 것과 긍정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

또한 초, 중, 고등학생의 학업성취와 독서시간은 유의한 정적 관계에 있었고 학업성취가 독서시간을 유의하게 예측했다. 즉 학업성적이 좋은 학생일수록 책을 읽는 시간도 많아졌다. 이는 학교 성적과 책읽기 간에 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많은 연구와 비슷한 맥락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서활동이 많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업성적이 높았다는 연구(조중열 · 이임숙, 2004)나 중학생의 독서량 및 독서시간이 학업성적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는 연구(신대철, 2006)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학업성취와 독서시간의 상관계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시기의 공부에 다양한 독서와 긴밀히 연결되는 반면 상급 학교에 진학할수록 입시위주의 공부가 되기 때문에 독서와의 관계가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이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일수록 책을 많이 읽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책을 많이 읽는 학생이 성적이 좋을 수도 있다. 또한 책을 읽으면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여 학업성적이 낮을 수도 있다. 학업성취와 독서의 관계는 어느 한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기보다는, 상호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독서가 학업성취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대부분이나, 본 연구는 높은 학업성취도 또한 독서시간에 영향을 줌을 밝혀 독서와 학업성취간의 관계에 또 다른 시각을 추가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초, 중, 고등학생의 독서시간이 자율적 행동역량과 유의한 정적 관계에 있으며 자율적 행동역량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즉 독서시간이 많은 학생일수록 스스로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 및 실천하는 정도도 높았다. 자율적 행동역량은 지식기반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개인이 자신의 생애를 관리하고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자율적으로 생활하는 역량 또는 자질(김기현 외, 2009)임을 미루어볼 때, 개인이 의지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해야 하는 독서(신우성, 2009)가 그러한 자율적 역량을 함양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독서가 자율적 행동역량에 미치는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인데,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독서치료 또는 독서요법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경향이 높다. 독서치료 또는 독서요법은 단순한 책 읽기 활동과는 구별되는 개념이지만 책을 매체로 하여 독서 후에 발표, 역할극 등을 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점에서 능동적인 독서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독서치료 또는 독서요법이 초등학교의 자기효능감을 유의하게 높였다고 보고하고 있다(이지현, 2005; 이상미, 2007; 함수희, 2008).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또한 독서요법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유의하게 높였다고 보고하였다(구명숙, 2006). 이와 같이 독서의 여러 특성이 아동 및 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학습 및 인생 목표와 과제를 설

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수행하고 평가하는 신념을 높인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된 실제 자율적 역량 또한 높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초, 중, 고등학생 모두 학업성취와 자율적 행동역량의 관계에서 독서시간의 부분적 매개 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아동 및 청소년의 자율적 행동역량은 학업 성적에 직접 영향을 받기보다는 독서시간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자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업성취가 자율적 행동역량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독서시간을 동시에 고려할 때 학업성취가 자율적 행동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이는 특히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의 경우에도 독서를 하는 경우 자율적 행동역량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입시 위주 교육환경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학업 성취가 개인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경험(박영신 외, 2002)임을 고려해볼 때, 학업 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성공 경험을 통해 자율적 행동역량 또한 함양하며 이러한 선순환을 통해 다시 학업에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경쟁적인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낙오된 학생들은 실패 경험을 하게 되고,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 및 보다 큰 환경에서도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지 못할 우려가 있다. 독서가 학업성적이 자율적 행동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을 줄인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독서를 권장하고 학생들이 학업성취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성공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학업 성취와 자율적 행동역량의 관계에서 독서시간의 매개효과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

등학생의 순서로 크게 나타났다. 즉 초등학생의 경우 독서시간을 고려하면 자율적 행동역량이 학교 성적의 영향을 받는 정도가 작아지는 폭이 가장 컸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그 변화의 폭이 작아졌다. 이와 같은 회귀계수의 변화 폭의 차이는 각 학생들에게 독서가 학업성취 및 자율적 행동역량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권민균(2002)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경우 독서를 통해 얻는 자신감이 중요한 독서 동기이다. 반면에 중학교 및 고등학교로 가면서 독서의 동기가 달라지고,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흥미와 같은 내적 동기가 독서의 중요 요인(김정희, 2009)이다. 이와 같은 독서 동기의 차이를 고려해볼 때 초등학생의 경우 독서를 통해 얻은 자신감이 학업성취를 통한 자기 주도적 삶을 매개하는 정도가 높은 반면에 교급이 높아질수록 독서를 통해 성취감을 얻기보다는 그 자체에서 재미를 느끼는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러한 매개효과의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초등학생은 중학생 및 고등학생에 비해 학교에서의 학업 성취 경험과 그에 따른 효능감을 상대적으로 덜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독서를 통해 변화될 수 있는 정도가 큰 반면, 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업 성취를 경험하는 학생은 괜찮지만, 그러한 성공 경험을 하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 스스로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다는 효능감이 점진적으로 저하되고, 독서를 통해서도 그러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정도가 작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표 1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독서시간이 전혀 없다고 대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4.6%, 중학생은 14.9%, 그리고 고등학생은 29.3%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스스로 책을 읽는 시간이 전혀 없는 학생의 비율이 높아졌다. 이는 입시

의 부담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독서할 여유가 없기 때문으로 볼 수 있지만, 여가시간 내에서의 독서 비율을 살펴보면 교급이 증가할수록 여가에서 차지하는 독서의 비중이 줄어들었다(한국출판연구소, 2010)는 결과로 미루어볼 때 점점 독서를 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처럼 교급이 올라갈수록 독서를 통한 자율적 경험이 줄어드는 것 또한 교급의 변화에 따른 독서의 매개효과감소에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학업성취가 자율적 행동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기는 하지만 독서를 통해 그 영향력이 달라진다. 따라서 자율적 행동역량이 단지 학업 성취의 효능감에서 올 뿐만 아니라, 독서의 과정에서 얻는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경험으로도 구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 지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중, 고등학교로 갈수록 자아정체성을 찾고 진로를 결정하는 등의 과업이 요구됨을 고려할 때 이 시기 학생들이 다양한 독서를 통해서 자기 삶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학생 본인이 질문지에 응답한 내용을 자료로 하였기 때문에 학업성취 또는 자율적 행동역량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자율적 행동역량의 경우 본인이 스스로 느끼는 정도가 중요하므로 자기보고식 방법이 부적절하지는 않지만, 학업성취의 경우 같은 정도라도 학생의 성향에 따라 더 낮거나 높게 보고될 수 있으며, 학년 및 교급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시험 성적을 사용하여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같은 교급 내에서도 학년별 차이 또는 성별 차이

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는 이러한 점을 세분화하여 밝힐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독서동기 등 다양한 요인을 포함하여 보다 종합적인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학업 성취가 자율적 행동역량의 설명력 증가에 기여함을 밝힘으로써 현재의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자율적 행동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한 가지 지표를 제시하였다. 둘째, 기존의 연구들이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많았지만, 이와 반대로 학업성취를 통한 학생의 효능감 및 자율적 역량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인데 이 연구는 학업 성취를 통한 자율적 행동역량을 살펴봄으로서, 변인들간의 선순환을 조망해보는 동시에 기존 연구가 부족했던 자율적 행동역량에 초점을 맞출 수 있었다. 셋째, 독서시간이 학업성취와 자율적 행동역량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며, 교급별로 변화의 차이가 다르다는 경향성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자율적 행동역량의 함양을 위한 구체적인 지도 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현석(2008). 인문계 고등학생의 학업 성취도 변화 분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구명숙(2006). 독서요법이 중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자기표현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민균(2002). 초등학생의 읽기동기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3(3), 17-33.
- 권해수·김기현(2010). 자율적 행동 역량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 핵심역량, 만족도, 진로계획 및 학

- 업성취도. **교육심리연구**, 24(1), 83-102.
- 권혜수 · 김민성 · 강영신(2011). 학교 기반의 청소년 핵심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2(1), 141-173.
- 김기현 · 맹영임 · 장근영 · 구정화 · 강영배 · 조문흠(2009).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 자율적 행동 영역**.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2009(1).
- 김의철 · 박영신(2003). 한국 학생의 자기효능감, 성취동기와 학업성취. **교육심리연구**, 17(1), 37-54.
- 김정희(2009). **고등학생의 읽기동기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영신 · 김의철 · 탁수연(2002). IMF시대 이후 한국 학생과 성인의 성공에 대한 의식.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8(1), 103-139.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편(1994). **교육학 용어사전 2**. 서울: 하우.
- 성태제(2007). **알기쉬운 통계분석**. 서울: 학지사.
- 소경희(2007). 학교교육의 맥락에서 본 “역량(competency)”의 의미와 교육과정적 함의. **교육과정연구**, 25(3), 1-21.
- 신대철(2006). 중학생의 독서와 교과 성적과의 상관관계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우성(2009). **미국처럼 쓰고 일본처럼 읽어라**. 서울: 어문학사.
- 이상미(2007). 집단 독서 치료가 초등학생의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지현(2005). 독서요법 집단상담이 초등학생의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경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지현(2004). 지각된 자율성 지지 정도와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동기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증열 · 이임숙(2004). 초등학생의 읽기 능력, 독서, 학업효능감 및 학업성적간의 인과적 관계. **초등교육연구**, 17(1), 127-143.
- 한국출판연구소(2010). **2010년(제13회) 국민 독서실태 조사**.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정책과).
- 한은미(2009). 고등학생들이 지각한 담임교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함수희(2008). 독서치료가 초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 Toward a unification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andura, A. (1993). Perceived self-Efficacy in cognitive development and functio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28(2), 117-148.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 W. H. Freeman and Co.
- Chemers, M. M, Hu, L., & Garcia, B. F. (2001). Academic self-efficacy and first year college student performance and adjust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3(1), 55-64.
- Knowles, M. S. (1975). *Self-directed learning : A guide for learners and teachers*. New York, NY : Association Press.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OECD (2005).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 Executive Summary*. [http : //oecd.org/edu/statistics/deseco](http://oecd.org/edu/statistics/deseco)에서 2010년 6월 7일 인출.
- Pajares, F. (1996). Self-efficacy beliefs in academic setting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6(4), 543-578.
- Pajares, F., & Miller, M. D. (1994). Role of self-efficacy and self-concept beliefs in mathematical problem solving : A path analysi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6(2), 193-203.
- Preacher, K. J., & Leonardelli, G. J. (2008). Calculation

for the Sobel test : An interactive calculation tool for mediation tests. [http : //www.people.ku.edu/~preacher/sobel/sobel.htm](http://www.people.ku.edu/~preacher/sobel/sobel.htm)에서 2010년 6월 5일 인출.

Zimmerman, B. J., Bandura, A., & Martinez-Pons, M.

(1992). Self-motivation for academic attainment : the role of self-efficacy beliefs and personal goal setting.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9(3), 663-676.

2011년 6월 25일 투고, 2011년 9월 14일 수정
2011년 9월 22일 채택